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디지털 공정 수리법에 서명

소비자가 자신의 전자 장치를 고칠 수 있도록 도구와 부품을 제공하는 법안(S4104-A/A7006-B)

Kathy Hochul 주지사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S4104-A/A7006-B)에 서명하여 뉴욕주 최초로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수리를 제한하려는 반경쟁적 노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과 스마트 기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더 필요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적시에 쉽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장치를 수리할 수 있는 더 나은 옵션을 부여하여 장치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공정 수리법(S4104-A/A7006-B)은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EMs) 공인 수리 업체 및 서비스 업체에서도 디지털 전자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진단 및 수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품 및 수리 정보를 독립 수리 업체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이 OEM 업체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부품과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고 설명서와 다이어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품목의 수리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뉴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수리 시장을 경쟁과 소비자, 기업가 및 환경적 혜택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Neil Bresli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이 새로운 수리법은 소비자가 전자 기기를 수리하기로 선택할 경우 더 많은 선택권과 경제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자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새 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헌신을 해주신 Fahy 의원님과 함께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atricia Fahy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늘날 미국의 첫 번째 수리권 법안인 디지털 공정 수리법이 법제화됨에 따라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독립적인

수리점을 위한 경쟁의 장을 평평하게 하고, 매립지의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많은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리점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와 부품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빅테크에 의한 수리 시장 독점이 종식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뉴욕주에서 매년 폐기되는 **655,000**톤의 독성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폐기물의 **85%**가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님, 상원에서 법안을 후원해주신 **Neil Breslin** 상원의원님, 그리고 수년간 디지털 공정 수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지칠 줄 모르는 공정 수리법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법은 빅테크에 의한 수리권에 반대하는 격렬한 캠페인 후의 어려운 타협안을 대표하지만, 저는 결국 소비자와 소기업이 승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법이 다른 주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리권을 제정하려는 노력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모든 미국인들이 결국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수리권'을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